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육류산업 *

장 희 원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21세기 들어 세계 육단백질 산업(meat protein industry)의 가장 큰 위기로 동물건강(animal health)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유럽에서 최초 발병되어 2003년 북미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2009년 봄에 발병되어 돼지고기 제품의 세계교역을 급속도로 위축시켰던 돼지 인플루엔자(Swine Flu), 2013~2014년 미국에서 발병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2015년 초 발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를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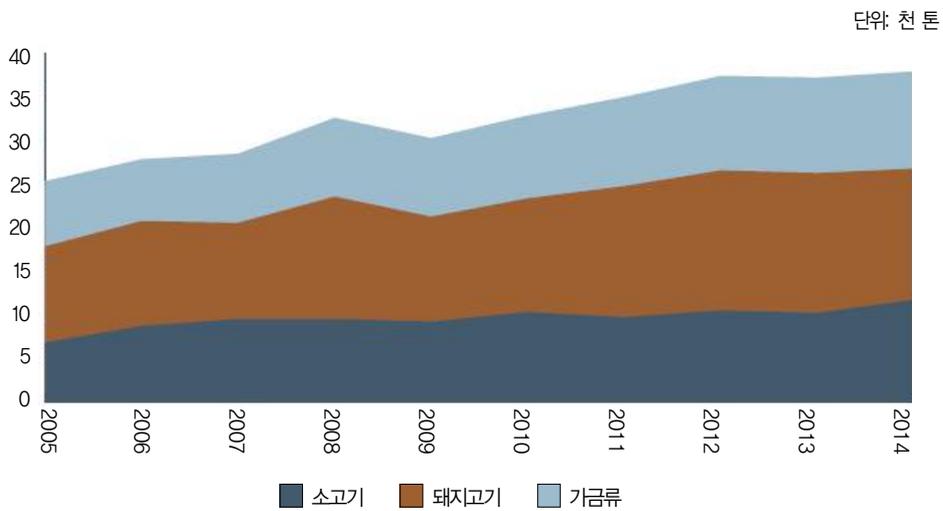
특별한 유행 조짐이나 전조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나 질병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산업 내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산업(corn ethanol industry)은 사료가격을 상승시켰고, 2008년 금융버블(financial bubble) 붕괴와 연이은 세계불황(global recession)은 에너지 가격을 폭락시켰다. 또한 2011~2012년 흉년으로 인한 곡물과 종자 가격의 급상승, 가뭄으로 인한

* (millelune@snu.ac.kr). 본고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하였음.

미국의 소 사육농가의 폐쇄, 러시아 식품 교역 금지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악재들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 육류 수요의 증가와 세계 육류교역의 확대에 의해 글로벌 육단백질 산업(meat protein industry)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그림1 참조>. 본고에서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자료를 토대로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칠면조 등 2016년 세계 육류산업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육류 수출량 추이(2005~2014)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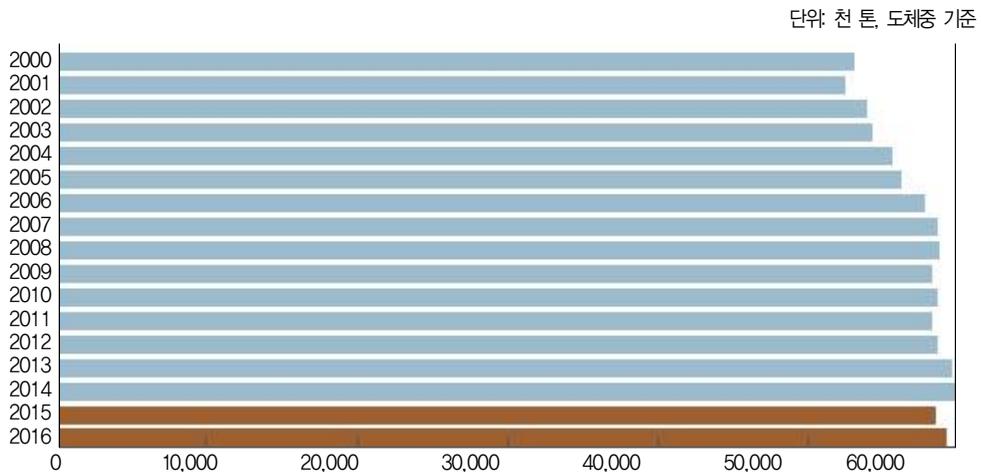
2. 소·쇠고기(cattle and beef) 전망

201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성장세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2016년 중반부터 쇠고기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쇠고기 산업(cattle and beef industry)은 단기적 감산기를 거친 후, 경기 사이클 상 확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15년간 세계 쇠고기 생산량 추이에 따르면, 2001년 식품서비스부문(food service sector)의 쇠고기 소비량의 둔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08년

까지 생산량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7~2008년 금융시장의 붕괴에 이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 추세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2012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3~2014년부터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도체중¹⁾ 기준 연간 6,000만 톤 보다 다소 적은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그림2 참조>. 당시 생산량 증가는 일부 국가의 생산 확대 영향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으로서는 미국의 주요 목축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있었다. 미국의 소 사육농가들은 가뭄으로 인해 사육을 위한 건초, 목초지, 물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도축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계 쇠고기 생산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2014년 말부터 2015년 말 까지 미국 쇠고기 생산량 부족분은 타 국가들의 생산 확대로 보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의 소 사육농가들은 소 사이클(cattle cycle)²⁾ 상 공격적인 생산 확장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201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성장세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2016년 중반부터 쇠고기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세계 쇠고기 생산량 변화추이(2000~2016)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1) 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 및 가죽 등 부가식 부분을 제외한 무게.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2) 미국의 육우 사육두수가 국제시장에서 약 10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

Wikipedia(en.wikipedia.org/wiki/Cattle_cycle) 접속일자 2016.03.27.

반면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인은 지난 2년간 주요 목축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소 사육농가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인도, 미국, 브라질의 증산효과가 호주,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주요 목축지역의 대규모 가뭄이나 바이러스 및 질병의 피해가 없다면,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부터 1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은 세계 쇠고기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브라질은 단일 국가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쇠고기 생산 국가로서, 양질의 곡물비육 쇠고기(grain-fed beef)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주로 목초사육(grass-fed beef)을 통한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도 곡물사육 비육장 산업(grain-fed beef feedlot industry)이 확대되고 있지만, 약 10%의 쇠고기만이 비육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3위의 주요 쇠고기 생산 국가이지만,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로부터 대부분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는 물소(Water Buffalo)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주요 원산지이지만, 문화적·종교적 규범으로 인해 대부분의 물소고기(carabeef)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 밖의 나라로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4%,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는 주요 쇠고기 수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장기적인 미국의 총 소 사육두수는 최 정점을 기록했던 1975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10~12년 주기의 소 사이클(cattle cycle) 상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확장을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소 사육규모는 1950년대 이래로 최저치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소 거래가격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2014년 후반기에는 최고치인 173달러/cwt³⁾를 기록했다. 쇠고기 가격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가축재고와 소 사육규모의 회복을 위한 암소(육우 및 암송아지)의 도축감소가 주된 이유이다. 생체(live)·도체(car carcass)⁴⁾ 중량의 증가가 실질적인 도축 감소분을

3) cwt(hundredweight): 질량단위. 영국에서는 112lb를 1cwt(50.802345kg), 미국에서는 100lb를 1cwt(45.359237kg)를 가리킨다. Wikipedia(en.wikipedia.org/wiki/Hundredweight) 접속일자 2016.03.27.

어느 정도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 높게 형성된 소·쇠고기 가격 하에서 2015년 쇠고기 공급량의 주기적인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과거 2년간 경량 송아지(lightweight calves)와 비육용 소(feeder cattle)의 높은 가격형성으로, 임신우(cow-calf)와 수유용 암소(suckler cow)를 통해 전례 없는 높은 이윤 폭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십 년 만에 소 사육규모의 확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인들은 돈육과 가금류에 비해 쇠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쇠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편이다. 쇠고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향후 공급확대와 맞물려 소·쇠고기 가격은 점진적으로 낮게 형성되겠지만 바로 당장 폭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돼지 · 돼지고기(hog and pork) 전망

2016년 이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16년 이후부터 장기적인 증가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들어 세계 돼지고기 생산 규모는 점점 더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2000년 약 8,500만 톤에서 2014년에는 1억 1,100만 톤으로 돼지고기 생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2007년 주요 돼지 생산지역의 생산자 수익성 악화와 질병 발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부진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5년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세계 돼지고기 생산규모가 근소하게나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규모는 여전히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해가 되었다. 2014년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의 발병과 이로 인한 높은 치사율은 미국의 돼지 도축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이 후 2015년 미국은 돼지고기 생산규모를 상당부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돼지고기 생산 감소추세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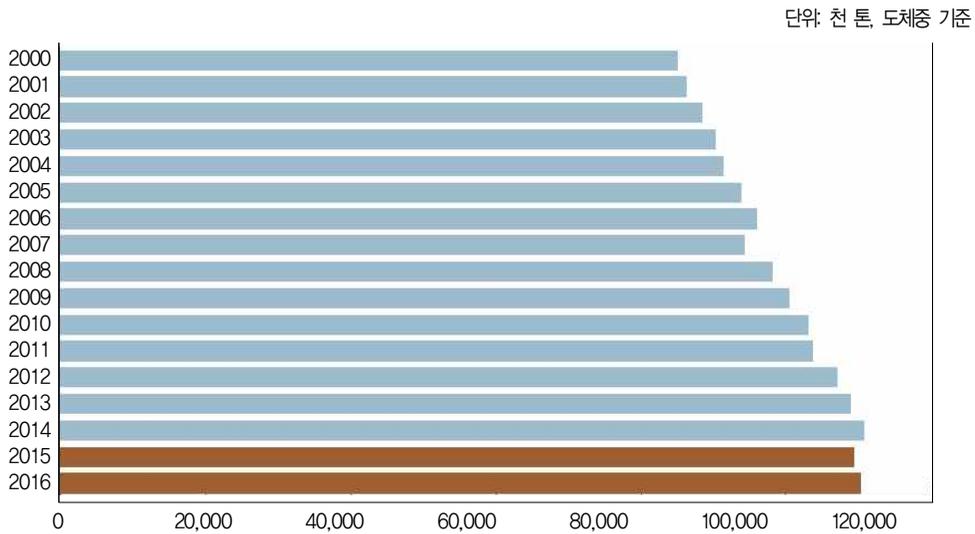
돼지고기 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으로,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변화는 중국 내의 생산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생산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오히려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후반부터 중국 돼지 사육농가의 수익성이 악화

4) 가축 도축후 머리, 다리절단, 박피 및 내장 적출후 나머지 부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되기 시작했고, 2014년 중반까지 많은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은 심각한 청산절차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소규모의 생산업자들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던 대형 돼지사육 업체들도 사업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내 돼지관련 산업체의 합병과 사업재편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돼지사육 규모는 8~10%이상 줄어들어 2015년 도축량과 돼지고기 생산수준은 감소하였다.

최근 중국 내 돼지가격은 반등하고 있으며, 사료가격의 안정화로 생산업체들의 수익성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16년 이후부터 장기적인 증가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돼지사육 지역에 질병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6년에는 돼지고기 생산량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변화추이(2000~2016)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2014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EU)(20%), 미국(10%), 브라질(3%) 순으로 세계 돼지고기 생산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 외 러시아(2%), 캐나다(2%) 등의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

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4개 생산국가(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브라질)들이 매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변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중국 제외) 대형 돼지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환율과 생산비가 세계 돼지고기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매년 일정량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거대한 인구 규모로 인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양의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4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가로서 각각 약 220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120만 톤), 브라질(55만 6,000톤) 순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2015년에도 세계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서방국가 식품 교역 금지조치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안으로서 아시아 시장에 공격적으로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2013년 봄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발병으로 2014년 봄까지 약 6~7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폐사하였다.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겨울까지 그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로 인해 2014년 봄부터 가을까지 도축 돼지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4>의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9월 1일자 돼지 재고량(pig inventory)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비육돈 재고(market hog inventory)가 2006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인 6,000만 두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1일자 비육돈 재고(market hog inventory)는 2008년과 2012년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의 피해로 인한 돼지 사육두수 감소폭은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까지 재고량이 다시 한 번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 동안 돼지사육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양돈업자들에게는 돼지 사육두수를 확장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미국의 종돈(breeding herd)⁵⁾ 재고수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다 2014년에 미비하게 상승하였는데,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가 분만율과 모돈(sow)⁶⁾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양돈업자들이 모돈(sow) 두수

5) 종돈은 번식에 필요한 종모돈(種母豚·씨수돼지)과 종빈돈(種牝豚·씨암돼지)을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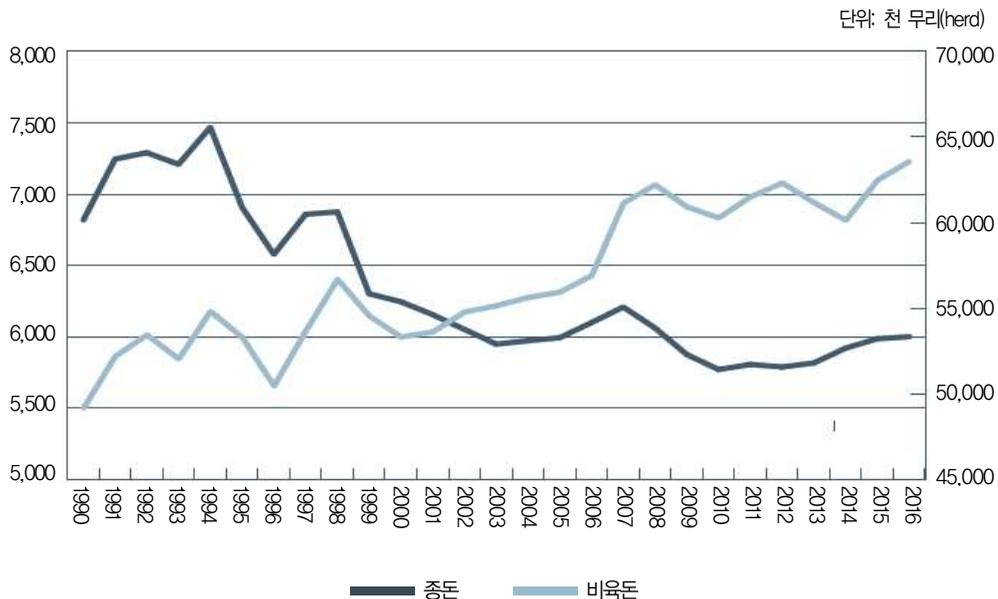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6) 번식에 이용되는 어미돼지.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의 재고를 일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1일자 종돈(breeding herd) 재고는 전년대비 1%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돈(sows)의 생산성이 예년만큼 높은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종돈(breeding herd) 재고상황 하에서 2016년 비육돈 재고(market hog inventory)는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에 의한 돼지 공급중단 현상 때문에, 2배 이상 상승한 돼지 및 돼지고기 가격은 빠른 공급량의 회복으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양돈 산업에 불어 닥친 변동성은 유례없는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세계 돼지고기 가격은 언제나 정상 수준을 회복하여 안정화되었다.

세계 돼지고기 산업은 지난 수십 년 간 거대한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축질병은 세계 모든 지역에 있어서 돼지고기 산업이 넘어서야 할 큰 도전으로 남아 있는 반면, 세계 GDP의 전체적인 성장세는 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 변화에 따라 유럽, 미국, 캐나다의 식습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육단백질(meat protein)관련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반

그림 4 미국 9월 1일자 돼지 재고량(hog inventory) 현황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면, 납미, 아시아, 중동지역은 육단백질(meat protein)관련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돼지고기 생산 및 교역의 확대와 함께, 향후 산업의 성장에 큰 기회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 가금류(poultry) 전망

파운드당 육계 생산비가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산비보다 저렴해진 이후, 육계 생산은 매우 강력한 비용상 경쟁 우위를 누리게 되었다.

세계 가금류 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 육계 생산규모는 2001년도 5,500만 톤에서 2014년 8,600만 톤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에는 9,0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참조>.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생산이 감소한 적이 없는데, 이는 육단백질(meat protein)관련 식품의 글로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세계인구의 증가, 곡물에서 육식 중심의 식습관 변화 등에 기인한다. 파운드당 육계 생산비가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산비보다 저렴해진 이후, 육계 생산은 매우 강력한 비용상 경쟁 우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 우위는 특히 최저 생활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소득증가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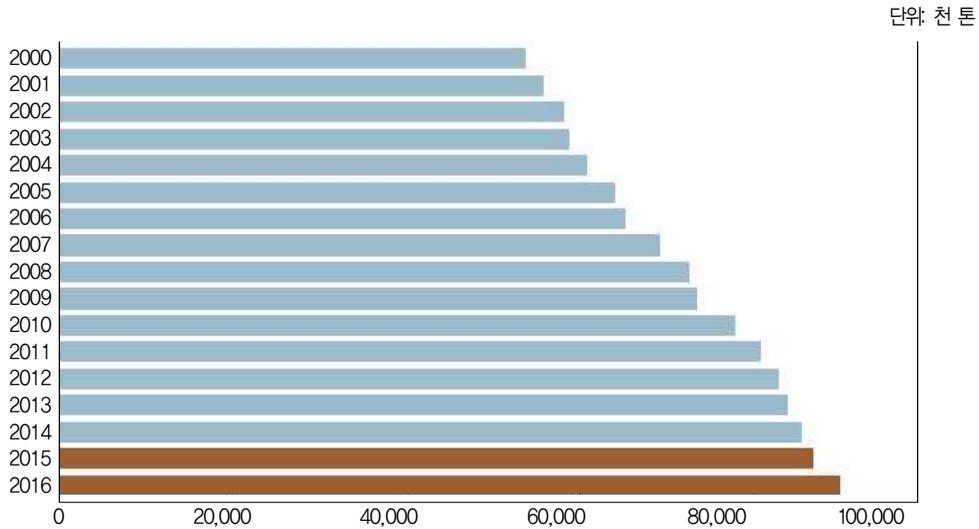
세계 생산의 절반을 중국에서 독식하고 있는 돼지고기 산업과는 달리, 육계 생산 지역은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014년 세계 육계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25%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계를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유럽연합(EU)이 각각 19%, 18%, 14%의 세계 육계 생산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양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사료비 하락의 영향으로 주요 육계 생산지역의 상대적 생산비중이 얼마만큼 급격히 변동될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달러강세 현상은 미국에게 있어서 육계를 생산하는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요소지만, 생산비 관점에서 미국과 브라질은 매우 효율적인 육계 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형 육계 생산 국가이자 수출국가로서 매년 약 40~45만 톤의 닭고기 제품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소비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은 자국 내 절대 소비수준보다 약

간 적게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소비규모이다. 중국의 국내 소비는 2015~2016년에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세계 육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0~2016)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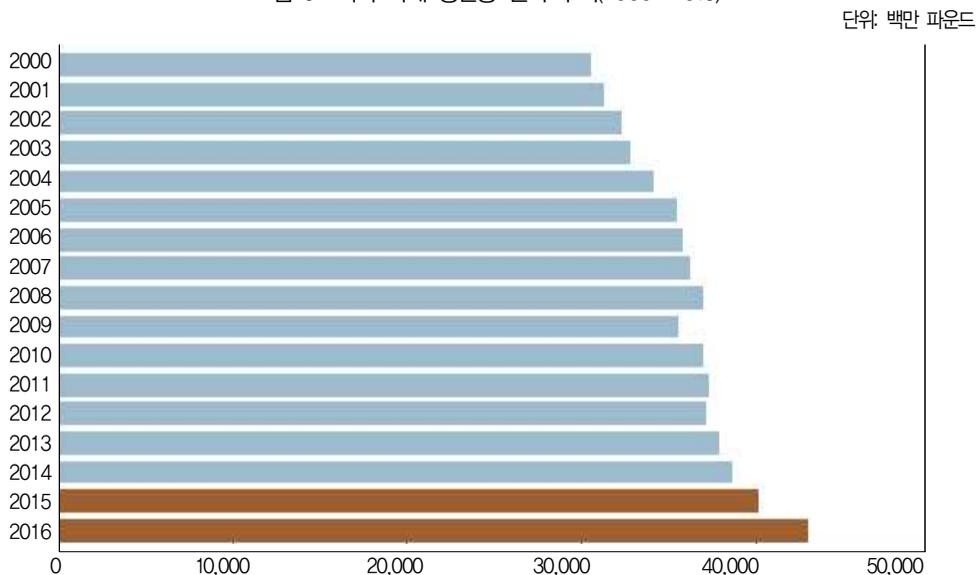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계 생산 및 소비 국가이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규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은 매년 약 350만 톤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매년 320~330만 톤의 수출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수출물량의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10%,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터키,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대형 육계 수출 국가로 손꼽힌다.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손꼽힐만한 특별한 주요 지역이나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세계 최대 육계 수입국가로서 매년 약 85~9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이라크의 수입 물량을 모두 합치면 연간 70~80만 톤의 규모에 달한다.

미국의 육계 생산은 2009년 대규모 생산 감축을 제외하면 2001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의 생산 감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금융버블 붕괴와 이어진 세계불황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비 상승으로 육계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으로 생산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육계 생산은 조정국면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의 육계 생산량은 2008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고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과 대두박(corn and soybean meal) 가격 상승이 육계 생산량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그림 6 참조>. 미국 육계 산업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봄까지 계란·칠면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부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미국의 육계 산업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피해를 대비하고 있으며, 백신의 잠재적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미국은 육계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의 방지와 근절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 6 미국 육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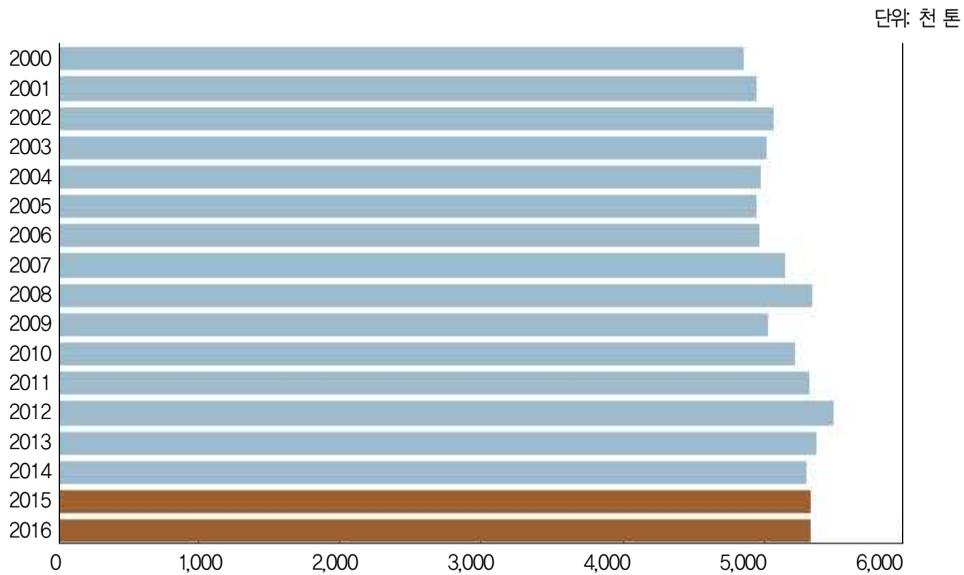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5. 칠면조(turkey) 전망

다른 주요 육류산업에 비해, 칠면조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반면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육단백질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림 7>에 따르면, 최근 세계 칠면조 생산량은 대략 연간 500~550만 톤 정도이며, 2013~2014년에는 사료비의 폭등

으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주춤하였다. 2015년에 접어들어 생산량은 다시 반등하였지만, 2015년 초봄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병으로 약 700만 마리의 칠면조가 폐사되어 여름과 가을철 미국의 칠면조 생산량이 급락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증가한 칠면조 생산량이 미국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미국의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영향이 없었다라도 예상만큼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세계 칠면조 생산량은 증가분은 매우 미미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림 7 세계 칠면조 생산 추이 현황



주: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임.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칠면조 산업의 이윤폭은 도축량 부족으로 인해 매우 좋은 편은 아니었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생산은 조류 및 칠면조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6년 하반기부터 세계 칠면조 생산량은 타 생산지역의 생산 확장과 미국 생산규모의 회복으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며, 2017년부터 보다 공격적으로 세계 칠면조 고기 제품의 생산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세계 칠면조 고기 제품의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40%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칠면조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산업과 유사한 상황으로 세계 칠면조 시장은

미국의 시장변동에 동조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다른 주요 육류제품과는 달리 칠면조 생산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제품에 비해 불규칙 경향이 있다. 미국 다음으로 주요 칠면조 제품 생산 국가는 유럽연합(EU), 브라질, 캐나다 순이며 각각 세계 칠면조 생산시장에서 29%, 7%, 3%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들이 21%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문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5.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참고사이트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Wikipedia(www.wikipedia.org)